



이 용 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부
(lyswater@dohwa.co.kr)

낙동강

발원지 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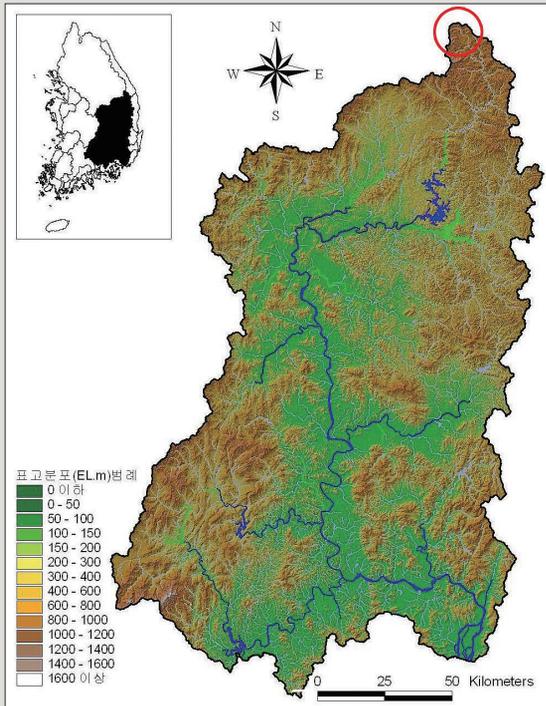
일 시 : 2009년 10월 27일

1. 낙동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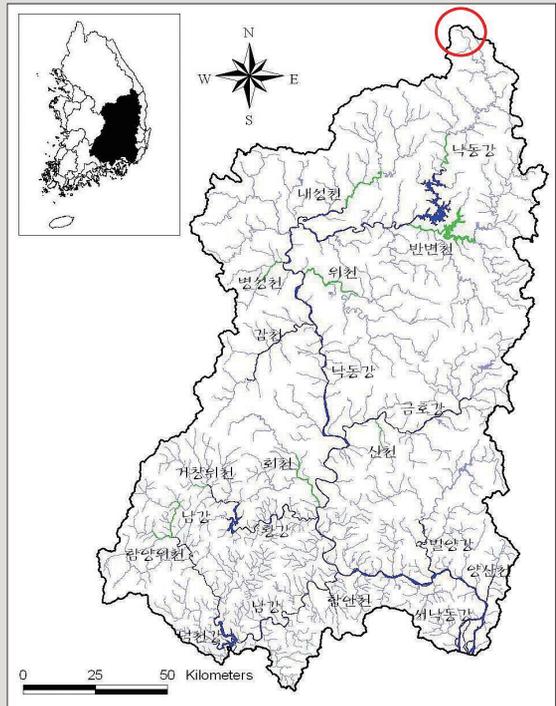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유역면적이 가장 큰 하천은 한강이고 하천 길이가 가장 긴 하천은 낙동강이다. 그러나 하천의 크기를 나타내는 두 요소를 한강과 낙동강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최고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의 함백산 은대봉에서 발원하여 태백을 지나고 남류하면서 안동댐에 유입한 후 안동댐 지점

에서 유로가 서쪽으로 방향을 1차 바꾼 후 서류하면서 반변천, 미천을 합류하고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지점에서 내성천과 합류한 후 2차로 방향을 바꾸어 남류하며, 영강, 위천, 백천, 금호강, 회천, 황강과 차례로 합류하고 경상남도 신령군 지점면 지점에서 남강과 합류한다. 남강 합류후 3번째 유향을 바꾸어 동류하다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읍 지점에서 밀양강과 합류한 후 4번째로 유향이 남서류로 바뀌면서 양산천과 합류하고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하구둑 지점에서



〈그림 1〉 낙동강 표고분포도



〈그림 2〉 낙동강 하천분포도

남해안에 유입한다.

낙동강유역은 동경 127°29'19"~129°18'0", 북위 34°59'41"~37°12'52"에 위치하며, 유역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4에 해당하는 23,702.02km²이고, 유로연장은 511.01km이다. 또한 유역둘레는 1,097.13km이고, 유역평균폭은 46.30km, 유역평균표고는 EL.291.2m, 유역평균경사는 32.26%이다.

낙동강(洛東江)은 '가락국(또는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 옛날 가야의 터전이었던 경북의 고령과 상주, 선산, 경남의 합천, 의령, 함안, 고성 지방은 모두 낙동강의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 지역에서 보면 낙동강은 동쪽 편에 위치한다.



〈그림 3〉 낙동강 경천대

고려시대 때 편찬된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에는 낙동강을 '황산강(黃山江)' 또는 '황산진(黃山津)'으로 표기했다. 황산이란 이름은 지금의 양산시 물금읍에 있던 황산나루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국시대에 신라의 수도 경주와 가락의 중심지 김해 사이에 교류가 성했던 곳이다. 그리고 가락이라 함은 삼국시대에 가락국의 땅이었던 지금의 경상도 상주 땅을 가리킨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역사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는 낙동강을 '낙수(洛水)' 혹은 '낙동강'이라고 썼다. 이 책에는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 36리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18세기 이극익이 지은 『연려실기술』에도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을 말함이다'라고 적고 있고, 이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낙동강'이란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오

늘날과 같은 낙동강의 이름은 조선 초기부터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낙동강의 첫 글자인 '낙(洛)'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경상북도 지명 유래집에는 '상주의 옛 이름은 낙양(洛陽)이고, 낙양의 동쪽은 낙동, 서쪽은 낙서, 남쪽은 낙평, 북쪽은 낙원(처음엔 나원으로 불리다가 오늘날 낙상면이 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낙양'이라는 곳이 '낙'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낙양은 상주 시가지의 서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는 '사직단터'라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사직단터는 조선 선조 10년(1577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지신(땅의 신)과 곡신(곡식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자리이다.

학자들은 낙양에 있는 이 비석이 바로 '낙'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말한다. 낙양이 바로 낙동강이란 이름의 고향이라는 것이다.¹⁾

근대화 이전의 낙동강은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이웃마을까지 자주 왕래하여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었던 탓에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웃과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강의 이름도 한 가지로 불려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을 터이고 점차 한 가지 이름으로 불려 오늘날의 '낙동강'이라는 대표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낙동강'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낙동강 하구 독으로부터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철암천 합류점까지를 낙동강이라고 한다. 그 상류는 황지천이라 불리며 태백사에서 주장하는 황지를 옆에 끼고 북서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발원지인 함백산 천의봉 북동쪽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만든 고도서를 중심으로 낙동강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명의 낙동강(<http://hakdong.bukgudglibo.busan.kr/>)

먼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편』에 “대천(大川)이 3이니, 첫째가 낙동강(洛東江)이다. 그 근원(根源)이 셋인데, 하나는 봉화현(奉化縣) 북쪽 태백산(太白山) 황지(黃池)에서 나오고, 하나는 문경현(聞慶縣) 북쪽 초점(草岾)에서 나오고, 하나는 순흥(順興) 소백산(小白山)에서 나와서, 물이 합하여 상주(尙州)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선산(善山)에서 여차니진(餘次尼津), 인동(仁同)에서 칠진(漆津), 성주(星州)에서 동안진(東安津), 가리현(加利縣)에서 무계진(茂溪津)이 되고, 초계(草溪)에 이르러 합천(陝川)의 남강(南江) 물과 합하여 감물창진(甘勿倉津)이 되고, 영산(靈山)에 이르러 또 진주(晉州) 남강(南江)의 물과 합하여 기음강(岐音江)이 되며, 칠원(漆原)에서는 우질포(弓叱浦)가, 창원(昌原)에서는 주물연진(主勿淵津)이 되어 김해(金海)에 이르고, 밀양(密陽) 응천(凝川)을 지나 뇌진(磊津)(해양강(海陽江)이라고도 한다)이 되고, 양산(梁山)에서 가야진(伽倻津)이 되고, 황산강(黃山江)이 되어,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둘째는 진주(晉州) 남강(南江)이다. 그 근원(根源)이 둘이니, 하나는 지리산 북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와서, 진주 서편에서 합류하여 광탄(廣灘)이 되고, 의령(宜寧)에 이르러 정암진(定巖津)이 되어, 동쪽으로 흘러 기음강(岐音江)으로 들어간다. 셋째는 초계(草溪) 황둔진(黃菴津)이다. 그 근원(根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전라도 무주(茂朱) 초현(草峴)에서 나오고, 하나는 감음현(減陰縣) 황석산(黃石山)에서 나와서, 거창(居昌)에서 합류되어 합천(陝川)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감물창진(甘勿倉津)으로 들어간다”²⁾ 라고 되어 있다. 즉 낙동강은 크게 낙동강, 남강, 황강(합천남강)을 큰 지류라고 보고 나머지는 작은 지류라 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황지에서 나온 물이 상주에 와서 낙동강이 되고 하류로 가면서 여차니진, 칠진, 동안진, 무계진, 감물창진, 기음강, 우질포, 주물연진, 김해, 응천, 뇌진, 가야진, 황산강, 하구 등의 순으로 이름이 바뀌며 하류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금익의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摠地理)』 편에 “경상도의 낙동강은 근원

이 태백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경상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며, 또 동쪽으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태백산 동쪽 줄기는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고 서쪽 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남으로 꺾어지며, 남쪽은 지리산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김해에 이른다. 경상도는 모두 한 수구(水口)를 이루니, 낙동강은 상주 동쪽을 말함이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는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통틀어 낙동강이라 부르며, 이 강은 또 ‘가야진(伽倻津)’이라고도 한다. 강 동쪽은 좌도(左道)가 되고, 강 서쪽은 우도(右道)가 된다. 고려 때에는 이 강과 호남의 섬진강·영산강 두 강을 거슬러 흐르는 3대 강이라고 하였다.

태백산의 황지(黃池)는 산을 뚫고 남쪽으로 나와서 봉화에 이르러 매토천(買吐川)이 되며, 예안에 이르러 나화석천(羅火石川)과 손량천(損良川)이 된다. 또 남쪽으로 흘러 부진(浮津)이 되며, 안동 동쪽에 이르러 요촌탄(蓼村灘), 물야탄(勿也灘), 대항진(大項津)이 된다. 영양·진보(眞寶)·청송의 여러 냇물이 모두 합하여 서쪽으로 흘러 용궁(龍宮)의 비룡산(秘龍山) 밑에 이르러 하풍진(河豐津)이 된다. 풍기·순흥(順興)·봉화·영천의 물은 합하여 예천의 사천(沙川)이 되고, 문경(聞慶)·용연(龍淵)·견탄(犬灘)의 물은 남쪽의 합창(咸昌) 곳천(串川)에 와서 합한다.

상주 북쪽에 이르러 송라탄(松蘿灘)이 되며, 상주 북쪽 동북 35리에 이르러 낙동강이 되며, 의성·의흥(義興) 여러 냇물은 군위·비안(比安)을 거쳐 와서 합쳐진다.

선산 북쪽에 이르러 견탄(犬灘)이 되며, 선산부(善山府) 동쪽에서는 이매연(鯉埋淵)이 되고 여차니진(餘次尼津)이 되며, 선산부 동남쪽으로는 보천탄(寶泉灘)이 되었다. 속리(俗離)·황악(黃岳) 동쪽 물은 지례(知禮)의 감천(甘川)이 되어 금산(金山)·개령(開寧)을 거쳐 합된다.

인동 서쪽에 이르러 칠진(漆津)이 되며, 성주 동쪽에 이르러 소야강(所耶江)이 되고 동안진(東安津)이 되니, 바로 대

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구 서쪽 경계이다. 영천(永川)·신령(新寧)·하양(河陽)·자인(慈仁)·경산(慶山)의 여러 물과 합하여 대구의 금호(琴湖) 달천진(達川津)이 되어 모두 합치고, 또 남쪽으로 흘러 무계진(茂溪津)이 되어 현풍(玄風)을 지나 서쪽으로 흐른다.

고령 동쪽에 이르러 개산강(開山江)이 되며, 성주의 가천(伽川)은 고령으로 들어가서 합천의 야천(耶川) 하류와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서 다시 합친다.

초계(草峴) 동쪽 창녕 서쪽에 이르러 감물창진(甘勿倉津)이 되며, 거창 덕유산 동남쪽 여러 냇물은 합하여 합천의 남강(南江)이 되고, 또 초계의 황둔진(黃菴津)이 되어 동쪽으로 흘러가서 합한다.

영산(靈山) 서쪽에 이르러 기음강(岐音江)이 되어 축석강(矗石江)과 합하여진다.

진주의 축석강은 그 근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리산 북쪽 운봉(雲峰) 경계에서 나와서, 함양의 임천(臨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용유담(龍遊潭)이 되고 엄천(嚴川)이 된다. 이 물은 산청 경계에 이르러 안의 동천(東川) 하류와 합하여 진주 서쪽에서 우탄(牛灘)이 되며, 단성(丹城)에 이르러 신안진(新安津)이 되는데, 삼가(三嘉)의 여러 냇물이 흘러 합쳐서 진주 서쪽에 이르러 소남진(召南津)이 된다.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와서 산을 돌아 동쪽으로 흐르다가 진주 서쪽에서 합쳐서 청천강(靑川江)이 되며, 성(城) 아래에 이르러 축석강이 된다. 다시 동쪽으로 의령에 이르러 정암진(鼎巖津)이 되며, 영산(靈山)의 기음강(岐音江)에 이르러 낙동강과 합하고, 칠원 북쪽에 이르러 모질포(毛叱浦)가 된다. 이 물은 다시 흘러서 매포(買浦)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혹은

‘무포(茂浦)’라고도 한다. 창원 북쪽에 이르러 주물연진(主勿淵津)이 되며, 밀양 남쪽 30리, 김해 북쪽 50리 경계에 이르러 뇌진(磊津)이 되는데, 이곳은 혹은 ‘해양강(海陽江)’이라고도 한다. 청도와 밀양의 물은 응천(凝川)이 되어서 영남루(嶺南樓)를 남쪽으로 돌아서 합쳐진다.

또 동쪽으로는 삼랑창(三浪倉)이 있고 남쪽으로 흘러 옥지연(玉池淵) 황산강(黃山江)이 된다. 또 남쪽으로 양산(梁山)의 동원진(東院津)이 되며, 또 남쪽으로는 세 갈래 물이 되어서 김해부 남쪽 취량(鷺梁)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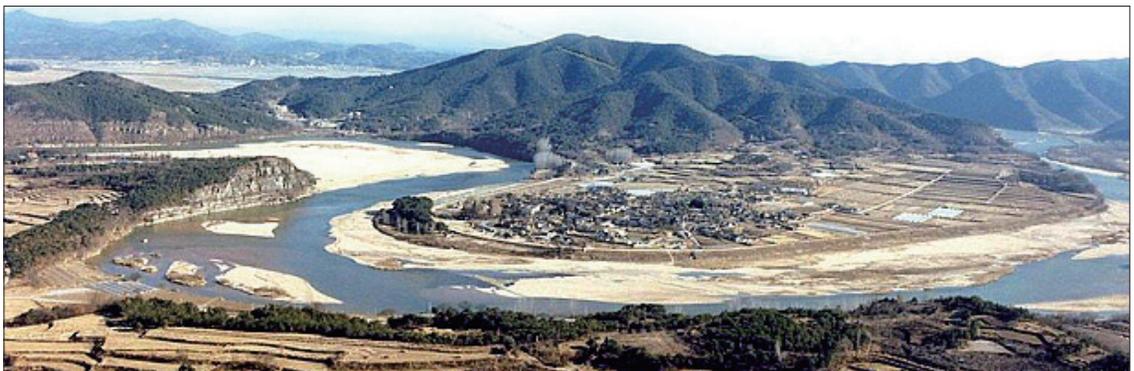
연려실기술은 세종실록지리지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대체로 중간구간의 강 이름을 세세히 적고 있다.

같은 책 『산천의 형승(形勝)』 편에는 지역별로 산천의 형승에 관해 자세히 적고 있는데 이중 하천에 관한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영호루(映湖樓)** : 낙동강의 원류가 태백산의 황지(黃池)에서 나와 남쪽 예안에 이르러 동쪽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에 와서 비로소 커지면서 굽이쳐 돌아 호수가 된다. 무협(巫峽)이 그 왼쪽에 벌여 있고, 성산(城山)이 오른쪽에 버티고 있다. 누각의 편액은 고려 공민왕의 글씨이다. 누각의 북쪽에 신라 때의 옛 절이 있는데 절의 정전이 들 가운데 높다랗게 서 있다. 서쪽에는 관왕묘(關王廟)의 석상이 있다.

귀래정(歸來亭)과 임청각(臨淸閣) : 이씨(李氏)가 대대로 전해오며 사는 곳인데 영호루와 함께 읍 중의 이름난 경치이다.

하회(河回) : 서애 유성룡의 옛집이 있는 곳이다. 깊이 괴인 물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산은 학가산(鶴駕山)에서 나



〈그림 4〉 하회마을



(그림 5) 회룡포 개인 홈페이지(<http://kr.blog.yahoo.com/mansuri2>)

누어진 것이다. 석벽이 강 위를 빙 둘러 있어 그 경치가 조용하고 빼어나게 아름답다. 위에는 옥연정(玉淵亭)과 작은 승암(僧菴)이 바위 사이에 띄엄띄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진실로 뛰어난 경치이다. 하회 마을의 위와 아래에는 또 삼구정(三龜亭)·수동(繡洞)·구담(九潭)·가일(佳逸) 등 강가에 이름난 마을들이 있다.

병천(瓶川) : 속리산의 남쪽에 환적대(幻寂臺)가 있다. 온갖 바위와 골짜기로 오솔길도 알 수가 없다. 냇물이 청화산(靑華山)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 용추(龍湫)에 흘러가는데 이것이 병천이다. 냇물의 남쪽에 있는 도장산(道藏山)과 청화산과 마주 보고 있다. 두 산 사이의 용추에서부터 그 위를 통틀어 용유동(龍游洞)이라고 한다. 골 안의 평지는 모두 반석이다. 큰 냇물이 돌 위에 질펀하게 퍼져 흐르면서 조그마한 폭포가 되기도 하고, 작은 못이 되기도 하며 물밭(水簾)이 되기도 하면서 물통(水槽) 같기도 하고 절구 같기도 하며, 짐승 같기도 하여 천태만상의 경치는 기기괴괴하다. 그 가운데 송씨(宋氏)의 정자가 있다.

선유산(仙遊山) : 청화산의 동북쪽에 있다. 산정은 평탄하고 계곡이 매우 깊다. 위에 칠성대(七星臺)·호소굴(虎巢窟) 진인(眞人) 최도(崔)와 도사 남궁두(南宮斗)가 도를 수련하던 곳이다. 시냇물이 흘러내려가 낭풍원(閻風苑)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대탄(大灘)으로 들어간다.

풍기(豊基)의 옥금동(郁錦洞) : 소백산 아래에 있다. 물과 바위가 수십 리에 걸쳐 있다. 위에 비로전(毗盧殿)이 있고, 옥금동 입구에 퇴계의 서원이 있다.

예안의 도산 : 황지(黃池)에서 나오는 물이 여기서 큰 시내를 이룬다. 시내 위의 양쪽 산이 합하여 긴 골짜기가 되고 산기슭에는 모두 석벽이 있다. 퇴계가 거쳐하던 암서헌(岩棲軒)이 지금도 있다. 도산의 하류에 있는 분강(汾江)은 유수이현보(李賢輔)의 고향이고, 그 남쪽은 좌주 우탁(禹倬)의 고향으로서 모두 경치가 좋은 곳이다.

순흥(順興)의 죽계(竹溪) : 소백산에서 흘러나온다. 물과 바위가 청명하다. 위에 백운동 서원이 있다.

의성의 얼음구멍 : 빙산(氷山)의 큰 바위 아래에 있다. 높이는 3자이고, 넓이는 4자 8치이며, 가로 들어간 것이 5자 1치인데 이것을 바람구멍이라고 한다. 또 바위 바닥에 바로 내려 뚫어진 구멍이 있는데 넓이는 1자나 되나 깊고 얇은 것은 알 수 없다. 입하(立夏) 뒤에 살얼음이 얼고, 매우 더워지면 얼음이 굳어지고, 토우(霖雨) 안개가 끼고 내리는 이슬비가 끼면 얼음이 녹는다. 봄과 가을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겨울이 되면 따뜻한 기운이 봄과 같다. 이것을 얼음구멍이라고 한다.

진주의 지리산 :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한다. 산을 둘러싸고 아홉 고을이 있으며, 산의 높이와 넓이는 몇백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동쪽은 천왕봉(天王峯)이라 하고, 서쪽은 반야봉(般若峯)이라 한다. 서로 연결된 계곡은 깊고 커서 백 리나 되는 긴 골짜기가 많다. 산의 맨 꼭대기에 향적사(香積寺)·가섭대(迦葉臺)가 있고 내를 따라 서쪽에는 화암사(華岩寺)·연곡사(燕谷寺)가 있으며, 남쪽에는 신흥사(神興寺)·쌍계사가 있다. 이 절에는 최고운(崔孤雲

최치원)의 화상이 있다. 냇가의 석벽에는 큰 글자로 ‘고운(孤雲)’이라고 새긴 것이 많다. 큰 냇물이 신흥사 앞에서 삼진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또 한줄기 물이 향적사(香積寺) 앞에서 내려와 실천(薩川)에 이르러 진주를 돌아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청천강(靑川江)이라고 한다. 천왕봉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천불암(千佛菴)이 있고, 암자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작은 굴이 있다. 동쪽으로 바다를 굽어보며 서쪽으로 천왕봉을 등지고 있어 맑은 경치가 절묘(絶妙)하다. 이 굴을 ‘암법주굴(巖法主窟)’이라고 부른다. 또 만수동·청학동이 있는데 만수동은 지금의 구품대(九品臺)이고, 청학동은 지금을 해계(海溪)라고 한다.

함양의 지리산 : 북쪽에 영원동(靈源洞)·군자사(君子寺)·유점촌(楡岾村)·벽소운동(碧霄雲洞)·추성동(楸城洞)이 있는데 모두 경치 좋은 곳이다. 산골물이 합쳐서 임천(瀍川)이 되고, 흘러 내려가서 용유담(龍遊潭)이 된다. 용유담의 양쪽에는 바윗돌이 평평하게 깔리고 겹쳐 쌓였는데 다 같아 놓은 것 같다. 가로 놓이기도 하고 옆으로 퍼지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큰 장독을 닮았는데 그 깊이는 바닥이 없고, 어떤 것은 술단지 같기도 하여 천 가지 만 가지로 기괴하다. 물속에는 가사어(袈裟魚)라는 물고기가 있다. 물은 군(郡)의 남쪽 25리 지점에 이르러 엄천(嚴川)이 된다. 시내를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개천과 돌의 경치가 매우 기이하다.

웅천(熊川)의 수락암(水落巖) : 울천현(栗川峴)의 남쪽 시냇물이 산하리의 바윗돌 사이로 흘러들어가 수십 길의 폭포를 이루는데, 세 갈래로 나누어 아래로 쏟아진다. 그 지방 사람들이 다음 해의 장마와 가뭄을 점치게 되는데 전라도가 가물려면 서쪽 갈래가 마르고, 경상도가 가물려면 동쪽 갈래가 마르며, 충청도가 가물려면 가운데 갈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

동래의 해운대(海雲臺) : 현(縣)의 동쪽 18리에 있다. 산기슭이 바다에 들어가서 누에고치의 머리와 같다. 그 위는 모두 동백(冬柏)과 두충(杜仲)으로 덮여 있다.”

조선시대 왕조에서 마지막으로 그때까지의 문헌을 총 정리한 『증보문헌비고 제20권 - 여지고 8 > 산천 2 > 내 > 낙

동강』에 실려 있는 낙동강의 하천별 명칭을 살펴보면 시대가 점점 근대로 오면서 오늘날의 명칭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동여도감정회상의 낙동강 하구

“낙동강(洛東江) : 근원이 안동(安東) 태백산(太白山)의 황지(黃池) 천산(穿山)에서 나와서 흐르기 때문에 천천(穿川)이라 이름 한다. 남쪽으로 흘러 왼쪽으로 소천 부곡(小川部曲)의 물[水]을 지나 매토천(買土川)이 되고, 오른쪽으로 도미천(道美川) (근원은 안동(安東)의 백병산(白屏山)에서 나온다) 재산천(才山川) (근원은 예안(禮安)의 청량산(靑凉山)과 일월산(日月山)은 서쪽에서 나온다) 을 지나 청량산(靑凉山)의 단사협(丹砂峽)을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퇴계(退溪)를 지나 천연대(天淵臺)를 경유하여 탁영담(濯纓潭)이 되며, 낙수(洛水)가 되어 농암(農巖)을 경유하여 분강(汾江)이 되고, 왼쪽으로 동계(東溪)를 지나 풍월담(風月潭)이 되며, 서쪽으로 흘러 예안현(禮安縣)을 경유하여 부진(浮津)이 되고 오른쪽으로 녹전산천(祿轉山川)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비암(鼻巖)을 경유하여 요촌탄(蓼村灘)이 되며, 안동부(安東府)에 이르러 동쪽으로 돌아탄(勿野灘)이 되고, 왼쪽으로 신한천(神漢川)을 지나 서쪽으로 꺾여서 견항진(犬項津)이 되며, 검암산(檢巖山)에 이르러 왼쪽으로 독천(秃川)을 지나 화산(花山)에 이른다. 오른쪽으로 화천(花川)을 지나 하

회(河回)의 승경이 되고, 서쪽으로 대곡(大谷)·선창(船倉)·수정(修正)·작탄(鵲灘)의 나루[津]이 되며, 용비산(龍飛山)을 돌아서 무릎탄(無訖灘)이 되고, 사천(沙川)·견단천(犬灘川)을 모아 삼탄(三灘)이 되며, 꺾어서 남쪽으로 흘러 하풍(河豐) 송라진(松羅津)이 되고, 자천대(自天臺)를 경유하여 비란진(飛鸞津)이 된다. 오른쪽으로 이천(伊川)·장천(長天)을 지나 죽암진(竹巖津)이 되고, 왼쪽으로 위수(渭水)를 지나 낙동진(洛東津)이 되며, 동남쪽으로 흘러 노자암(鷓鴣巖)을 경유하여 이연(鯉淵)·여차(餘次)·보탄(寶灘)·월파(月波)의 나루[津]가 되고, 오른쪽으로 감천(甘川)을 지나 송학(松鶴)·비산(飛山)의 나루[津]가 되며, 왼쪽으로 장천(丈川)·울주천(蔚洲川) (근원은 선산(善山)의 금오산(金烏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지주비(砥柱碑)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흘러 칠진(漆津)·동안강(東安江)·소야강(所也江)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천(伊川)을 지나 하빈고현(河濱古縣)을 경유하여 행탄(杏灘)·사문(沙門)의 나루[津]가 되어 금호강(琴湖江)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모인다. 오른쪽으로 귀천(龜川) (근원은 현풍(玄風)의 비슬산(琵琶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대암(臺巖)을 경유하여 개산강(開山江)과 감물(甘物)·답곡(沓谷)의 나루[津]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천(伽倻川)을 지나 우산(牛山)·현창(玄倉)의 나루[津]가 되며, 서쪽으로 황둔강(黃屯江)과 함께 모여서 양진(仰津)이 되고, 오른쪽으로 세천천(世千川) (근원은 의령(宜寧)의 사굴산(闍窟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박진(朴津)이 되며, 기강(岐江)이 진강(晉江)과 함께 모여 꺾어서 동쪽으로 흘러 송진(松津)·멸포(蔑浦)가 되고, 계성산천(桂城山川) (근원은 창녕(昌寧)의 화왕산(火旺山) 남쪽에서 나온다)을 지나 영포진(寧浦津)이 되며, 오른쪽으로 칠원(漆原)의 서천(西川)·내진천(來進川)을 지나 해양(海陽)·삼랑(三浪)·오우(五友)의 나루[津]가 되고, 왼쪽으로 응천(凝川)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신교천(薪橋川) (근원은 창원(昌原)의 염산(簾山)에서 나온다.)을 지나 작천(鵲遷)을 경유하여 왼쪽으로 내포천(內浦川)을 지나 꺾어서 남쪽으로 흘러 가야(伽倻)·동원(東院)의 나루[津]가 된다. 왼쪽으로 호포(狐浦) (근원은 양산(梁山)의 취서산(鷲棲

山)에서 나온다)를 지나 월당진(月堂津)이 되고, 꺾어서 삼차하(三叉河)가 되며, 칠점산(七點山)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³⁾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 제3권 천관수제(天官修制) 군현분예(郡縣分隸)』 편에 보면 낙동강을 “황수(潢水)”라 칭하자고 주장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다산의 역작인 『대동수경(大東水經)』에서 주장한 것으로 미완성 작품인 대동수경을 만들게 된 의지가 담긴 용어로 해석된다.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중국의 하천은 “하(河)”, “강(江)”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한 법칙이 없고 일본의 하천은 모두 “천(川)”으로 통일되어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강(江)과 “천(川)”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하천을 “수(水)”라는 접미어로 붙여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정약용이 제안한 하천의 이름을 살펴보면 압록강(鴨綠江)은 녹수(淥水), 두만강(豆滿江)은 만수(滿水) 등과 함께 한강은 열수(冽水), 낙동강은 황수(潢水), 금강은 사수(泗水), 섬진강은 잔수(潺水), 임진강은 대수(帶水), 만경강은 안수(鴈水), 영산강은 영수(潁水), 남강은 남수(濫水) 등과 같은 이름으로 작명을 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같은 책에 “생각건대, 들(野)에 획을 그어서 주(州)로 나누는 데는 유명한 산과 큰 냇물을 한계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을 유명한 산과 큰 냇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대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영남성·황서성이란 지금의 경상도이다. 이 도에 황수(潢水 : 낙동강)가 있어, 남쪽으로 흐르는데, 물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태백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백산에서 나온다. 소백산을 따라 내려오면서, 황수 동쪽에 있는 것을 영남성으로 하고 황수 서편에 있는 것을 황서성이라 했다”

낙동강의 발원지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1486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 삼척도호부편에 “황지(黃地)” 서쪽 1백10

3) 국역 증보문헌비고(2000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www.krpia.co.kr

리에 있다. 그 물이 남쪽으로 30여 리를 흘러 작은 산을 뚫고 남쪽으로 나가는데 천천(穿川)이라 한다. 곧 경상도 낙동강의 원류이다. 관에서 제전(祭典)을 두어서 날씨가 가물면 기우(祈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낙동강이 황지에서 발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림 7) 황지

이후 근대적인 측량기술과 지도제작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모든 문헌은 태백산, 황지 등을 낙동강의 발원지로 표기하고 있다. 이후 1978년 김우관(金又寬) 교수가 낙동강 유역도(축척 1:250,000 지형도) 상에서 낙동강의 수계차수(水系次數)를 조사하고 최대차수가 6차수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함백산 천의봉 아래를 발원지라고 하였다.



(그림 8) 은대샘

1983년 하천학자 이형석씨는 국립지리원 발행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상에서 곡선자로 도상계측(1987년)한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최장발원지는 태백시 함백산 천의봉 북동쪽 계곡을 현지답사하고 너털 지역에서 한 샘이 용출하는 것을 발견하여 ‘너털샘’이라 명명하고 ‘낙동강의 발

원지 - 너털샘’이란 표지목을 세운 바 있다.

2007년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너털샘보다 위쪽을 “은대샘”이라 칭하고 커다란 표지석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태백시는 황지(黃池)를 낙동강 발원지로 주장하며 여타의 지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현지답사

낙동강 발원지 답사는 2003년 12월과 2009년 10월 두 차례 시행되었다.

2003년은 필자가 발원지 답사를 시행하던 초기로 책에서 보았던 발원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단계여서 너털샘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그 상류 물길을 적당히 둘러보는 걸 할기 정도의 답사였다. 그러나 2009년은 본격적인 준비와 장비를 가지고 하는 본격적인 답사라 할 수 있다.

2009년 10월 27일 서울에서 출발한 나는 두문동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고개 아래로 내려갔다. 길가에 차를 대고 발원계곡으로 올라갔다. 길가에서 몇 발자국 안가면 너털샘이 있고 그 표식은 쓰러져 있고 낙엽만 쌓인 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자리로 볼 때마다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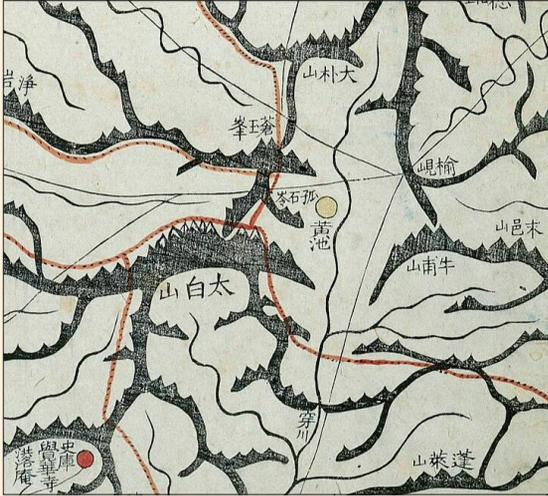
너털샘을 뒤로하고 약간 올라가면 두 갈래 계곡이 나온다. 오른쪽을 택하여 올라가니 너털지대의 중간에 움푹 파인 계곡의 흔적이 있고 그 아래로 희미한 물길이 바위틈을 따라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계속 너털지대를 올라갔다. 너털지대 끝쯤으로 물길의 흔적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산꼭대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산 정상에는 헬기장이 있고 삼각점이 있었다. “은대봉”이라는 비석을 태백시의 한 산악회에서 세워 놓았다.

멀리 삼수봉(태백시 삼수동) 쪽의 풍력발전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고 또한 두문동재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들이 질주를 하면서 내는 소리가 자동차 경주장의 그 광음처럼 들리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저 아래에서 갈라졌던 다른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

을 택하여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얼마 안 내려가서 옛날에도 도로 이용되던 길을 만나고 그 아래에 넓은 너털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림 9〉 대동여지도상의 낙동강 발원지

이곳이 발원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높고 있어 이곳을 발원지로 하였다.

낙동강 발원지는 은대샘보다 더 위쪽에 있으며 은대봉 봉우리의 9부 능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발원지는 단순히 샘이 아니며 지도상 하천의 최상류에서 건천 상태의 유로를 따라 최상부에 위치한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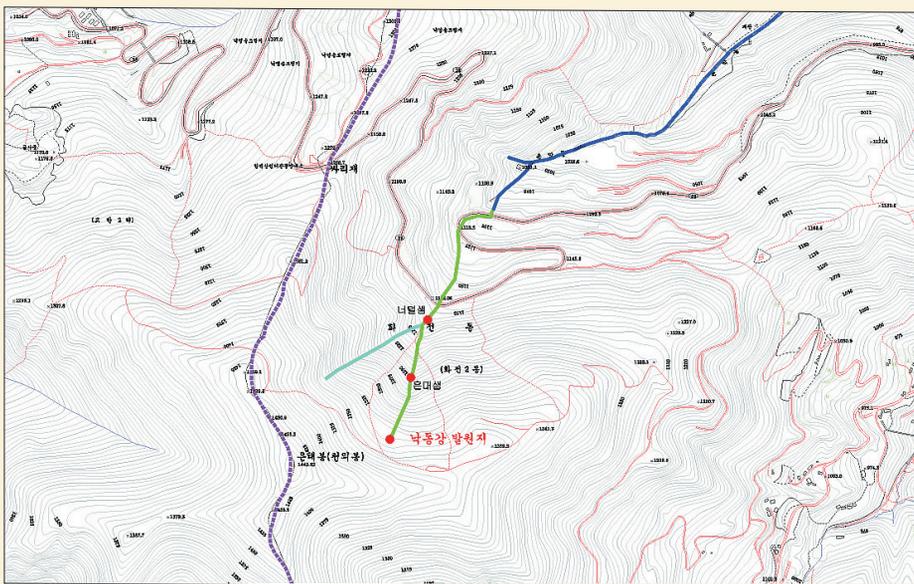
이 지점은 과거 광산도로 또는 산림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도로 밑에 있으며, 너털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움푹 들어간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바위에 이끼가 무성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습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동강 발원지의 GPS 좌표는 해발 1,235m 지점의 북위 37°11'43", 동경 128°54'58"(GRS80좌표계)이다.

낙동강 발원지로의 접근방법은 두문동재의 정상에서 태백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우측에 은대봉으로 올라가는 계곡을 만나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도로 바로 위에 너털샘이 있고 계속 올라가면 은대샘을 만나며 더 위로 거의 정상에 가까이 올라가면 낙동강의 발원지를 만날 수 있다. 시간은 대략 30분이면 가능하다. 



〈그림 10〉 낙동강 발원지



〈그림 11〉 낙동강 발원지 위치도